



기획조사팀

■ 세계 와인생산량

영국의 주류 컨설팅업체인 IWSR(International Wine & Spirits Record)에 따르면 2008년 전 세계 와인생산량은 30억 5,500상자(1상자=9Liter)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 요인으로 인해 와인 생산량이 감소했던 2007년 보다 소폭 증가(1.8%)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2009년까지 이어져 2009년에는 31억 2,000상자의 와인이 생산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세계 와인생산량은 지난 2004년 33억 1,300상자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기록하였지만, 향후 큰 변화없이 30~31억 상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2008년 최대 와인생산국은 5억 5,300만 상자를 생산한 이탈리아로 세계 와인 총 생산량의 17.1%를 담당하였으며, 프랑스가 15.9%로 2위, 스페인이 15.1%로 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상위 3개 와인생산국이 전 세계 와인생산의 절반가량(48.1%)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 와인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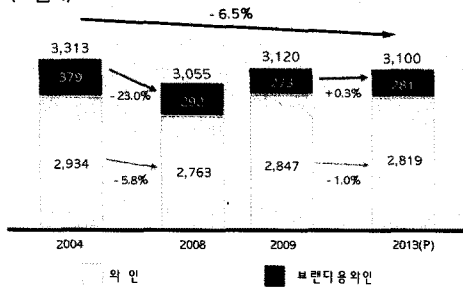
〈표 1〉

단위 : 백만 상자 (1상자=9Liter)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3년(P) ¹⁾
와 인	2,934	2,734	2,807	2,717	2,763	2,847	2,819
브랜디용 와인	379	357	345	282	292	273	281
합 계	3,313	3,091	3,152	2,999	3,055	3,120	3,100

1) P : (Prospect) 추정치

〈그림 1〉



2008년 프랑스를 제치고 와인 생산량 1위에 오른 이탈리아는 2009년을 기점으로 와인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9년에는 프랑스가 다시 세계 1위 생산국이 되었으며, 이 순위는 201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국, 러시아 등 신흥와인시장의 와인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와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와인생산의 특성상 상위 10개 와인생산국이 세계 와인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와인국가의 와인생산 독점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10개 와인생산국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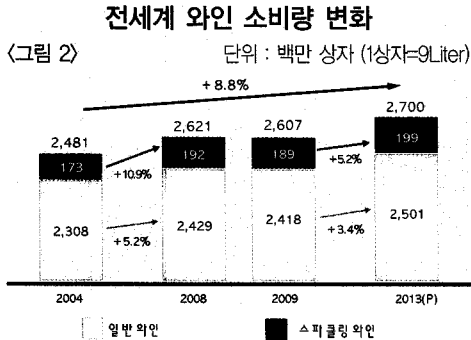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상자 (1상자=9Liter)

국 가	생산량			증감률(%)
	2008년	2009년	2013년(P)	2009-2013년
이탈리아	521	514	494	-3.97%
프랑스	486	520	520	0.00%
스페인	462	411	425	3.38%
미 국	329	348	338	-2.88%
아르헨티나	172	173	176	1.55%
호 주	136	136	138	1.29%
독 일	111	110	135	22.82%
칠 레	102	106	121	13.94%
러시아	83	94	110	17.00%
중 국	77	85	105	23.53%
기타국가	576	623	538	-13.7%
총 계	3,055	3,120	3,100	-0.64%

■ 세계 와인소비량

세계 와인소비량은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세계 와인소비량은 26억 700상자로 5년전인 2004년에 비해 소비량이 5.6% 증가하였다.

IWSR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와인소비는 약 27억 상자로 예상되며, 이는 2009년에 비해 소폭



(3.5%) 증가한 양이다. 일반와인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3%대의 소비증가가 예상되며, 스파클링와인²⁾의 경우 이보다 높은 5.2%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 세계 와인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는 와인의 숙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

● 국가별 와인소비량

2008년 세계 최대 와인소비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순이며(스파클링 와인 제외), 상위 3개국이 전 세계 와인소비량의 약 35%인 8억 6,000만 상자를 소비하였다.

이들 국가중 미국의 와인 소비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소비가 정체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와인생산국인 프랑스는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다. 한편 2008년까지 세계 3위 와인소비국이었던 미국은 2009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2위에 올랐으며, 2013년에는 미국이 와인소비량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위 10개 와인소비국

(표 3) 단위 : 백만 상자 (1상자=9Liter)

국 가	소비량			증감률(%)
	2008년	2009년	2013년(P)	2009-2013년(P)
이탈리아	298	298	300	0.57%
프랑스	287	277	263	-4.84%
미 국	277	283	310	9.54%
독 일	244	239	242	1.07%
영 국	135	134	136	1.76%
아르헨티나	119	118	118	0.07%
스페인	98	95	91	-3.97%
중 국	75	80	105	31.61%
러시아	71	70	75	6.41%
루마니아	57	56	58	3.30%
기타국가	768	768	804	4.68%
총 계	2,429	2,418	2,502	3.45%

2) 스파클링와인 : 발포성 와인의 통칭으로, 프랑스 샹파뉴에서 만든 발포성 와인은 샴페인으로,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발포성 와인은 스파클링와인으로 부름

한편 세계 10대 와인소비국에서 세계 와인의 70% 가량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흥 와인소비국중에서는 중국의 와인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소비량 증가폭이 상위 10개 와인소비국중 가장 높은 3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과 함께 큰 와인소비증가율을 기록했던 러시아의 경우 2006년 도입된 납세증제도와 경기 약화와 같은 요인에 의해 소비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와인소비량증가로 와인이 대중적인 술로 자리를 잡고 있어 향후 과거와 같은 소비증가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와인시장을 보면 대부분의 상위 와인소비국이 직접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국인 경우가 많다. 물론 많은 국가에서 와인생산은 하지 않으면서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대부분 와인소비가 타 주종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 반면 영국은 기후의 영향으로 와인생산량은 거의 없으나, 소비량은 세계 5위에 해당하고 있는 특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 국가별 1인당 와인소비량

국가별 와인소비의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연평균 1인당 와인소비량을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순으로 많은 와인을 소비하고 있다. 이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3개 국가의 1인당 와인소비량이 향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인당 연간 와인소비량 (상위10개국)

(표 4)

(단위 : ℓ)

국 가	소비량			증감률(%)
	2008년	2009년	2013년(P)	2009-2013년(P)
프랑스	57.6	57.2	53.4	-6.64%
이탈리아	56.1	56.2	56.3	0.18%
스위스	48.4	48.3	48.2	-0.21%
포르투갈	44.5	44.1	43.2	-2.04%
아르헨티나	38.8	38.1	36.3	-4.72%
독 일	38.6	37.7	37.0	-1.86%
덴마크	38.2	37.5	36.3	-3.20%
벨기에/룩셈부르크	31.9	31.7	32.5	2.52%
스페인	29.1	28.2	27.4	-2.84%
영 국	26.8	26.4	26.4	0.00%

반면 이탈리아의 1인당 와인소비는 현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1인당 와인소비량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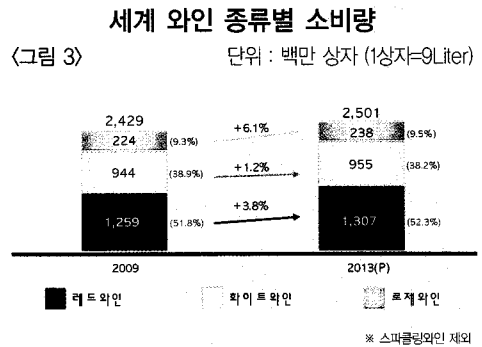
와인 총 소비량 기준 세계 3위와 5위인 미국과 영국의 1인당 와인소비량은 각각 27리터, 12리터로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이는 향후 1인당 와인소비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1인당 소비량이 세계 상위권에 든 국가는 없으나, 향후 와인시장 성장잠재력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연 3리터 수준으로 1위에 해당되며, 타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연간 와인소비량은 3리터 이하로 서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

● 와인종류 및 가격대별 소비량

와인을 레드, 화이트, 로제³⁾의 세가지 종류로 구분시, 레드와인이 51.8%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화이트와인이 38.9%, 로제와인 9.3%를 차지하고 있다.

와인 가격대 소비는 750ml 병당 5달러 이하의 대중적인 와인이 전체(스파클링 와인 제외) 와인소비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물가인상에 따른 와인가격 인상과 고가 주류 선호 경향에 따라 고가 와인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저가와인의 소비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 일반와인 가격대별 소비량

〈표 5〉 단위 : 백만 상자 (1상자=9L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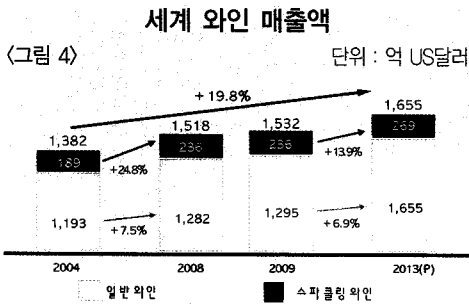
가격대 (US달러기준)	2004년		2008년		2013년(P)	
	소비량	점유비	소비량	점유비	소비량	점유비
5달러 이하	1,710	74.0%	1,718	70.9%	1,731	69.2%
5~10달러	444	19.2%	521	21.4%	573	22.9%
10달러 이상	154	6.8%	189	7.7%	197	7.9%
합 계	2,308	100%	2,428	100%	2,501	100%

3) 로제와인 : 로제와인은 핑크빛을 띠는 와인으로 레드와인용 포도를 압착한 후 발효시 레드와인 보다 짧게 발효를 시켜 껍질을 제거한 후 레드와인 공정처럼 하지 않고 화이트와인 공정으로 제조, 따라서 색상은 레드와인에 가깝지만 맛은 화이트와인에 가까움, 로제와인은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고 화사한 맛을 지녔으며, 숙성기간을 짧게 하여 마시는게 좋음

■ 세계 와인매출액

세계 와인시장 매출액은 와인 소비량보다 빠르게 증가중으로 그 원인은 환율상승, 와인가격상승 및 소비자의 고가와인 선호 때문이다. 2008년 세계 와인매출 총액은 1,518억 달러로 2004년 대비 9.9%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1,532억 달러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 와인매출액은 2013년에 1,65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스파클링와인의 매출액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별 와인매출액을 보면, 미국은 연 220억달러의 와인이 판매되며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에 올라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경우 고가와인의 소비량이 많아, 소비량 대비 매출액이 타 국가보다 높은 반면, 이탈리아와 독일 등 와인이 대중적인 주류로 음용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저가와인의 소비량이 많아 와인매출액은 소비량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가별 와인매출액 (상위10개국)

(표 6)

단위: 억 US달러

국 가	매출액			증감률(%)
	2008년	2009년	2013년(P)	2009-2013년(P)
미 국	220	225	249	10.59%
영 국	153	152	156	2.57%
프랑스	130	126	121	-3.71%
독 일	96	94	97	2.52%
이탈리아	90	91	92	1.22%
스페인	54	53	51	-3.12%
러시아	47	46	50	8.59%
캐나다	42	44	53	21.28%
호 주	35	35	39	11.08%
중 국	30	33	47	43.56%
기타국가	385	397	431	8.56%
총 계	1,282	1,296	1,386	6.97%

※ 스파클링와인 제외

와인매출액 상위 국가중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이 향후 와인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현재 와인소비는 적지만 향후 와인매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계 와인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인구수에 비해 와인매출액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향후 높은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중 하나이다.

■ 주요 와인수출입국

● 수출국

수출량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와인을 수출한 국가는 스페인이며 그 뒤를 이탈리아, 프랑스가 있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와인을 수출했던 프랑스는 스페인에 1위 자리를 내주었으며, 최근에는 이탈리아에도 뒤진 3위에 올랐다.

반면, 수출액 기준으로는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2배, 스페인에 4배가량 앞서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 스페인은 대중적인 저가와인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프랑스는 고급와인으로 유명한 국가답게 고가의 와인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이다.

신흥 와인생산국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와인수출량과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와인수출 강국으로 부상중이다.

세계 9대 와인수출국

(표 7)

단위 : 백만 상자 (1상자=9Liter) / 억 US달러

와인수출량 기준				와인수출액 기준			
국가	수출량 (백만상자)		증감률(%)	국가	수출액 (억US달러)		증감률(%)
	2004년	2008년	04-08년		2004년	2008년	04-08년
스페인	153	173	13.66%	프랑스	79.6	97.3	22.33%
이탈리아	140	152	8.97%	이탈리아	32.6	41.9	28.26%
프랑스	157	151	-3.88%	스페인	20.6	26.7	29.51%
호 주	71	77	8.50%	호 주	21.1	16.5	-21.84%
칠 레	52	65	25.89%	칠 레	8.4	13.8	64.67%
미 국	37	46	24.56%	독 일	8.6	9.9	15.45%
아르헨티나	17	45	167.51%	미 국	6.9	8.6	22.75%
남아공	30	26	53.49%	아르헨티나	2.4	6.2	161.34%
독 일	32	24	-15.33%	포르투갈	2.9	3.9	34.14%

● 수입국

영국으로 와인수입량, 수입액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와인수입국가인데, 이는 영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와인을 소비하는데 비해 생산량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와인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외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와인소비는 많으나 와인생산이 없는 국가들 역시 와인

수입량이 많은 편이다.

독일은 세계 6위 와인생산국이지만, 화이트와인과 같은 일부 주종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어, 타 종류의 와인수입량이 많은 편이며, 동시에 화이트와인 수출량 역시 많은 와인 수출입 강국이다. 일본의 경우 와인 수입량은 많지 않으나, 고가와인 수입이 많아 와인수입액은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10대 와인수입국

〈표 8〉

단위 : 백만 상자 (1상자=9Liter) / 억 US달러

와인수입량 기준				와인수입액 기준			
국가	수출량 (백만상자)		증감률(%)	국가	수출액 (억US달러)		증감률(%)
	2004년	2008년	04-08년		2004년	2008년	04-08년
영 국	124	134	7.73%	영 국	141.2	152.6	8.09
독 일	136	129	-5.36%	미 국	64.4	76.4	18.69
미 국	64	75	17.14%	독 일	42.2	39.8	-5.69
네덜란드	37	40	8.11%	캐나다	24.5	32.6	32.75
캐나다	20	27	30.88%	네덜란드	21.2	23.5	10.83
벨기에/룩셈부르크	27	27	1.23%	러시아	8.8	22.6	157.42
러시아	12	25	115.04%	일 본	22.3	22.0	-1.3
스웨덴	16	19	16.58%	스웨덴	14.9	17.7	18.78
스위스	18	18	2.40%	벨기에/룩셈부르크	16.4	17.0	3.66
덴마크	17	17	1.49%	덴마크	14.4	14.6	0.9

■ 종합

세계와인산업의 특징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과 같은 기존 와인강국들의 와인생산이 현상유지 또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 와인생산국들의 와인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흥 와인생산국들은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와인들을 바탕으로 수출량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기존 와인생산국들은 이와 같은 신흥국가들의 성장이 달갑지 않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질 좋은 와인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저가의 와인부터 프랑스산 고가와인까지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신흥와인생산국들의 도전은 기존 강자들에게 자극을 주어 좀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다양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와인소비가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와인소비는 여전히 증가중에 있으며, 중국, 인도와 같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이 존재하고 있어, 세계 와인산업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자료는 영국계 컨설팅회사인 IWSR(International Wine & Spirits Research)사와 VINEXPO 사무국에서 전세계 28개 와인생산국과 114개 소비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음